

우승자 에스코트부터 상금 박스 수송까지

〈1억2000만 원〉

다른 대회와 차별화...갤러리들 눈길
'캡스홀' 지원 등 사회적 가치 활동도
SKT 5GX 중계...AR 체험 등 이벤트

16화제를 맞이하는 'ADT캡스 챔피언십 2019(총 상금 6억, 우승상금 1억 2000)'가 8일부터 사흘 간 충남 천안 우정힐스CC(6632야드, 파 72타)에서 열린다. 단일 스폰서로는 국내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ADT캡스 챔피언십 2019'에는 타 대회와 다른 '무엇'이 존재한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만한 요소들을 소개한다.

●4관왕 노리는 최혜진의 시즌 피날레

'ADT캡스 챔피언십 2019'는 치열하게 달려온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대회인 만큼 '웃는 자'와 '웃지 못하는 자'가 명확하게 갈리게 된다. 지난 주 1등을 추가하며 대상과 다승왕을 확정된 최혜진이 상금과 최저 평균타수 타이틀, 시즌 4관왕을 달성하기 위해 장하나와 마지막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상금 순위 60위권 선수들의 내년 시드권을 향한 경쟁도 ADT캡스 챔피언십의 숨은 관전 포인트이다.

●우정힐스CC, KLPGA에도 문을 열다

우정힐스CC에서 최초로 KLPGA 대회가 열린다. 우정힐스CC는 2003년부터 남자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코오롱



ADT캡스 챔피언십 2018 시상식에서 보안요원들이 박민자를 에스코트하고 있다.

사진제공 | ADT 캡스 제공

한국오픈을 개최해왔으며 저스틴 로즈, 로리 맥길로이, 리키 파울러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 코스를 거쳐 갔다.

매년 최상의 코스 컨디션을 조성하여 난이도가 높은 골프장으로 손꼽히는 우정힐스CC는 최근 대한민국 베스트 코스 3위에 오르기도 했다. 남자 선수들의 호쾌한 샷 대결이 펼쳐지던 우정힐스CC를 세계 최고 KLPGA 선수들이 어떻게 공략할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캡스홀' 연계 사회적 가치 활동

ADT캡스는 보안전문기업으로서 대

회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올해는 특히 대회장 인근 대학교와 함께 ADT캡스의 홈보안 서비스인 '캡스홀'을 활용해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18번 '캡스홀' 시그니처 홀에서 버디가 1개 기록될 때마다 홀로 자취하는 대학생 1인에게 1년간 '캡스홀'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회는 주최사의 기업 이미지가 잘 녹아져 있는 대회로도 유명하다. 우승자에게 수여되는 팔각형 트로피와 우승 상금 1억 2000만 원이 담긴 팔각형 머니박스는 대회기간 동안 ADT캡스 보안요원

들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며, 시상식 때는 보안요원들의 에스코트와 함께 우승자가 입장한다.

또한 ADT캡스는 '지킨다'는 브랜드 특징을 앞세워 각 대회의 핸디캡 1번 홀에서의 성적을 종합하여 우승상금을 수여하는 'ADT캡스 세이프티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16년, 2018년 2회 우승한 박재윤과 김지영2가 동타의 기록으로 접전을 벌이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 최후의 승자가 가려질 예정이다.

●SKT 5GX 중계 등 특별한 활동과 이벤트

SKT의 가족이 된 ADT캡스가 골프팬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대회 기간 13번 홀에서는 SK텔레콤의 5GX 전용망을 활용한 5GX 무선 생중계를 진행해 더욱 생생한 경기 시청은 물론 타구의 궤적과 스핀양, 타구 최고점을 시각화 하는 트랙맨, 스윙을 슈퍼 슬로모션으로 보여주는 초고속 카메라 등 특수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갤러리 플라자에서는 SK텔레콤의 5GX 서비스 체험 및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5GX 체험존이 마련될 예정이다. JUMP AR 앱을 통해 뱃서판다, 웰시코기 등 귀여운 AR 동물들의 다양한 골프 포즈를 즐기며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gn@naver.com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한국시리즈 귀로 듣고 싶다 외면 받는 라디오 청취자들

2019 KBO리그 한국시리즈가 끝났다. 많은 야구팬들이 TV와 스마트폰을 통해 두산 베어스의 우승을 지켜봤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화면으로 야구를 접할 수 없는 팬들은 제대로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즐길 수 없었다.

한국시리즈 라디오 중계를 편성한 방송사는 SBS와 KNN이다. 하지만 방송법상 SBS는 수도권, KNN은 SBS의 중계를 받아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만 방송할 수 있었다.

라디오는 아직 중요한 방송 매체이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TV 중계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더욱 자세한 라디오 중계가 더욱 박진감이 넘친다. 운전자는 주행 중 DMB나 스마트폰 시청이 불법이기 때문에 라디오만이 주행 중 가능한 방송 매체이다.

한국 스포츠의 태동과 함께 한 라디오. 하지만 모바일 TV 중계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라디오 스포츠 중계는 줄어들었다. 특히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월드컵, 올림픽과 같은 중요 이벤트의 경우 라디오 중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스포츠 경기를 라디오로 편성하고 있는 해외와 커다란 대조를 보인다. 영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전문 라디오 방송망이 2개(BBC 5라디오, Talksport)나 있고 일본 역시 NHK를 포함해 공·민영방송들이 수시로 스포츠 중계를 편성하고 있다.

물론 라디오 중계 확대에 대한 반론도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라디오 스포츠 중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취자에게 봉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것이다.

전현우 명예기자(명지대 정치외교학 전공)

hwjin@mju.ac.kr

김정석 응원단장 “엘린이들 보며 초심 되새겨”

(LG 어린이 팬)

북돌이·스테프 알바로 LG와 인연
“첫 시즌...함께 응원해주셔서 감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G 트윈스 김정석 응원단장의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졌다. 응원단장으로서 첫 시즌을 보낸 그는 여전히 열정이 넘쳤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응원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교내 운동부 시험에서 응원을 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응원단장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LG에 애정이 깊다. 2017년 북돌이

와 스테프 아르바이트를 하며 LG와 인연을 맺었다는 그는 올해 마침내 응원단장의 꿈을 이루게 됐다.

“좋은 응원을 만들기 위해 노래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노래가 흘러나오는 장소에 갔을 때 좋은 곡을 들으면 응원가와 어울릴지 먼저 생각하는 편이에요.”

기억에 남는 엘지 팬으로는 ‘엘린이’들을 꼽았다.

“응원을 하고 있으면 초등학교,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단상 앞에서 같이 응원을 합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응원을 하고 있으면 초심을 잃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라

며 가장 기억에 남는 어린이와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어린이날 두산 어린이 팬과 주스 빨리마시기 대결에서 이긴 친구가 기억에 납니다. 이긴 후 함께 단상에서 응원을 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내년 어린이날에도 그 친구를 초대해 단상 위에 서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LG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첫 시즌이라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흡과 원정 구분 없이 경기 때마다 함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G트윈스의 우승을 위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원비 명예기자(순천향대 스포츠과학 전공)

dnjsq108277@naver.com



LG 트윈스 김정석 응원단장

사진제공 | 김정석

男도 춥다~ 이 세트 구성이면 추위 끝! 상상초월 대박찬스를 잡아라! 4종세트 49,800원

기능성·스타일·활용성
모두 겸비한
베스트셀러 아이템으로 구성!



누빔자켓 사이즈 90, 95, 100, 105, 110 / 패딩조끼 사이즈 95, 100, 105, 110
바지 사이즈 30, 32, 34, 36, 38, 40 / 티셔츠 사이즈 95, 100, 105, 110

쇼핑몰 :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씨스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각종 카드결제 환영